

작물보호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주최 '소비자정보전시회' 참여

10.14~18 충북지역 소비자대상,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전시실서

도심지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 및 작물보호제 안전성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가 주최하는 「제19회 소비자정보전시회」에 참여하여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한국작물보호협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총 3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교육과학연구원(청주소재)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주부클럽활동관 △소비자정보관 △저탄소 녹색환경소비관 △식품안전소비관 △건강관리체험관 등 총 8개관에서 각각 전시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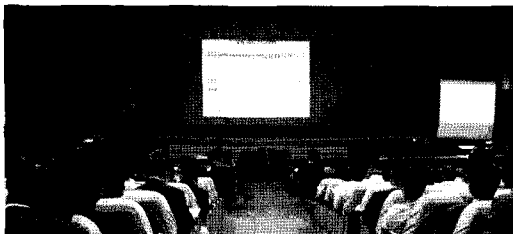
'식품안전소비관'에 자리한 한국작물보호협



회는 '왜 농약을 사용해야 하나?' '농약의 개발 및 분해과정' '발암의 원인' '농약의 독성은 어느정도인가?' 등 패널 5종을 전시하고 작물보호제 안전성에 관한 각종 팸플릿과 '농약 Q&A 집' '농약과 먹거리' 등 홍보책자 2천여권을 배부하는 등 막연한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도심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호기를 가졌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앞으로도 도심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미나 개최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약과학회 「2009추계 학술발표회」 개최 10.8~9 천안 상록리조트서, '농약관리법' 개정 공청회도 열려



한국농약과학회(회장 한호규) 「2009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가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학술발표회 첫날인 8일, 임시총회에 이어 '대일 수출 파프리카 농약안전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김홍우 과장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충남대학교 유용만 교수의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청 임

경농, '농촌사랑일손돕기' 제주도에서 전개

감귤수확 및 영농폐기물 수거 등 수확기 농촌에 큰 보탬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은 지난 11월 21일, 본사 및 제주지점 임직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학생 등 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감귤작목반을 찾아 감귤 수확 작업 및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사랑일손돕기를 전개했다. 또한 일손돕기활동 후에는 감귤 재배와 관련한 병해충 방제방법, 과수원 잡초 관리방법 등 영농컨설팅도 전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농의 농촌사랑일손돕기 봉사활동은 경농이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나눔경영 및 1사

1촌 자매결연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기별로 모내기 활동, 병해충 예방활동, 장미철 수해복구활동, 기타 농촌일손돕기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날 농촌사랑일손돕기활동에 참가한 송중수 제주 지점장은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농업인들과 직원들이 함께 맘을 흘리며 단합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농은 지난 2005년부터 각 지점별로 인근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촌사랑일손돕기, 병해충방제기술 제공, 농업경영컨설팅 제공 등 각종 농촌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전국 1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2010년부터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무혁 박사의 '수입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농촌진흥청 임건재 박사의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식물검역원 이종호 박사의 '수출입 농산물의 병해충 위험 분석', Dole Japan의 양형모 박사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 현장(일본)에서 본 농약문제' 등 총 5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특히 제4부에서는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농약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에 즈음하여 「농약관리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려 관련 기관 및 대학, 산업계가 늦은 시간까지 열띤 공방을 주고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동방아그로, 「2009영업 직무 향상교육」 실시



(주)동방아그로(대표이사 염병만)가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충남 아산 소재 금융투자연수원에서 「2009영업 직무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영업·마케팅, 개발, 연구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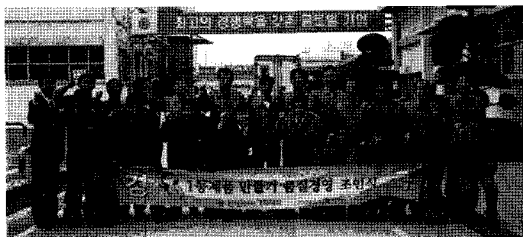
동부하이텍 · 동부정밀화학, 「품질경영 조인식」 개최

1등 제품 만들기 결의, 고객감동 실현의지 다져

(주)동부하이텍(대표 차동천)과 동부정밀화학(주)(대표 이재관)이 지난 11월 10일 동부하이텍 인천 공장에서 공장 전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1등 제품 만들기」 조인식을 가졌다.

공장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이날 조인식에서는 초일류 제품을 만들어 고객감동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품질방침 합의서에 서약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마케팅실 고중익 상무는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고객만족이 아



니라 고객이 기대하지 못한 부분까지 만족시키는 고객감동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하이텍과 동부정밀화학은 인천공장을 시작으로 구미, 울산, 전주 등 전국 공장을 돌며 「1등 제품 만들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는 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병해충관리,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 공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영업 활성화 및 기술력 향상을 이루는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동방아그로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품격의 기술영업을 통한 수준 높은 작물보호제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보화학, 「2009마케팅 워크숍」 개최

성보화학(주)(대표이사 박종영)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충북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09마케팅 워크숍」을 개최했다.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대대적인 경영혁신 변화



를 시도해온 성보화학이 재도약을 위해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 한해를 재평가하고, 미래시장 환경 개척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갖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 등 시종 정겨운 분위기속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날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농업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다가오는 2010년이 전화위복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삼공, 새 CI 발표 제2도약 선언

10.16 컨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슬로건 3종도 선정

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태원)가 지난 10월 16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CI를 발표하고 제2창업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강원도 평창군 컨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가진 이날 선포식은 한국삼공이 걸어온 길, CI 발표, 사기 전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온 직원 상호간의 안부를 묻는 등 시종일관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태원 사장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비전제시에서 “객관적 실체적 차별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타사 제품과는 다른 시장접근으로 SG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자”고 말하고 “어려운 시장경쟁 상황을 굳건히 이겨내 종합 녹색기업으로의



성장은 물론 한 발 앞서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새로운 CI의 이니셜 ‘SG’로 슬로건을 정하는 콘테스트에서는 138점 중 “Speed SG”, “Seed Germination”, “So fun, Great” 등 3점을 선정하고, 앞으로 한국삼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Speed SG”은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욕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회사로 변화하자는 의미이며 “Seed Germination”은 종자 발아처럼 감춰진 내면의 잠재력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성장하자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So fun, Great”는 즐거운 가족 같은 조직생활과 위대한 회사로 성장코자 하는 삼공인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영업부 박완순 상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목전의 실적위주 영업은 지속적일 수 없다”고 말하고 “보다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현장의 농업인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차별 있는 영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삼공, 「2009하반기 영업본부 전략회의」 개최

한국삼공(주)(대표이사 한태원)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09하반기 영업본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컨싱턴 플로라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내년 출시 예정인 6가지 신상품에 대한 교육 및 2009농업시장 이슈에 따른 농약시장 변화, 친환경농업 현황과 대응, 주요 품목의 마케팅전략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토론이 이

오더스, 「2009원예박람회」 참가

(주)오더스(사장 조영복)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2009원예박람회(HORTI FAIR)」행사에 참가, 전시회를 가졌다.

지난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시회에 참가한 (주)오더스는 금번 전시회에서 5개의 신규 개발제품을 비롯, 기존 국내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 '내츨칼업', '에이스칼라', '노바 켈프' 등 모두 12개 제품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스를 찾은 많은 내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원예박람회(HORTI FAIR)는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400여 회사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며,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약 100여 나라의 50,000여명이 방문하여 참관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오더스 조영복 사장은 "이 같은 큰 규모의 행사에 2년 연속 참여함으로써 무엇보다 연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사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다"면서 "앞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혀 작년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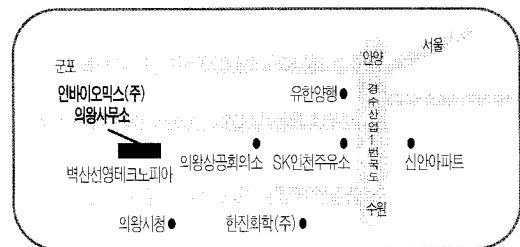
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상황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일선 대학에서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병해충의 생리생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전달도 있었으며 향후 개발될 제품과 금년도 신제품에 대한 전시포 결과를 발표하고 판매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제품이론 및 기초실력에 대한 교육평가가 이뤄졌다.

홍두화 전무이사는 총평을 통해 "태풍이 없는 등 호조건의 기상상황이 오히려 작물보호업계에는 재고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적잖이 미쳤다"면서 "정직하면서도 신속하고 빠르게 고객에게 다가갈 때만 난관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바이오믹스, 의왕사무소 이전

인바이오믹스(주)(대표이사 이명재)가 의왕사무소를 이전했다. 이전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96-5 벽산선영테크노피아 904호 이며 전화번호는 031-477-6011, 팩스번호는 031-477-6015번이다.



인사

■ 인바이오믹스 스개발 · 영업본부장 최정훈 이사. 